

2025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10주년 기념 인터뷰집

묵묵히  
함께

# 묵묵히 함께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김용규  
백영기  
오혜자  
윤송현  
이나양  
이종복  
이종수  
홍근옥  
홍승표

2025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10주년 기념 인터뷰집

# 묵묵히 함께

김용규  
백영기  
오혜자  
윤송현  
이나양  
이종복  
이종수  
홍근옥  
홍승표



## 통합 10년 책으로 이어온 작은도서관

청주시와 청원군이 하나의 도시로 통합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그와 함께 청주·청원의 작은도서관들도 뜻을 모아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지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의 걸음을 기록하고,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담고자 합니다.

2015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작은도서관들이 손을 맞잡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책으로 이웃을 잇고자 했던 마음이 모여 오늘의 협의회가 탄생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운영의 어려움과 환경의 차이 속에서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책과 도서관 문화'를 향한 열정 하나로 길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2015년 통합 총회를 시작으로, 스스로 통합의 기쁨과 화합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2016년 오창도서관 개관식 때 '제1회 청주시 작은도서관 축제'를 열었습니다. 예산은 없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즐거운 기획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이를 지켜본 도서관 관계자와 시의원들의 응원 속에 책축제는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열정과 노력이 시민이 함께 즐기는 책축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협의회는 이후 다양한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1도서관 1위원회'를 원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정책위원회는 포럼과 평가 지표를 연구하며 방향을 모색했고, 교육위원회는 월 1회의 책 추천과 선진지 탐방을 주도했습니다. 문화행사위원회는 책축제 등 대표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편집위원회는 '청포도(청주시 포근한 작은도서관 이야기)' 소식지를 발행하며 작은도서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총회와 워크숍, 월례회의마다 위원회별로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정책포럼 개최와 파주·전주 등 선진지 탐방으로 이어졌으며, 도서관 소식은 청포도 소식지에 꼼꼼히 담겼습니다. 특히 2019년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는 협의회의 역량이 빛났습니다. 나무로 지은 작은도서관 형태의 전시관 안에 북큐레이션을 바탕으로 각 도서관이 주제별 책을 전시한 「나를 찾아봐! 특별한 책꽂이」 전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공간 일부를 독서공간으로 내어주는 작은도서관의 정신, 좋은 책을 선별해 시민과 나누는 문화운동의 의미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사재를 털어 공간을 꾸려온 활동가들의 열정이 바로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10주년을 맞아 통합 전후의 역대 회장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단편처럼 흩어졌던 기억과 활동들이 회장들의 회고 속에서 생생히 되살아났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함께했던 인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책'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책을 통한 지적 탐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의 허브이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문화자치의 산실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책으로 성장하는 힘은 마을과 학교, 세대를 잇는 독서공동체로 이어지고, 건강한 민주시민의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오랜 세월 풍상을 견뎌 온 나무가 뒤틀리고 옹이가 생겨도 그 자리에서 꺾이지 버티듯,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또한 꽃밭과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1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갑작스런 코로나로 방향을 잃기도 했지만, 책을 통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이어갈 것입니다.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주인은 책을 사랑하고 작은도서관을 지키는 활동가와 시민들입니다. '책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협의회 회원, 도서관 운영자, 그리고 청주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박미라

첫번째

# 글마루 작은도서관

Kim  
Yong  
Kyu

질문하는 사람  
이재복 박미라

대답하는 사람  
김용규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청도협)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김용규라고 합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경 주공1단지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걸 계기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협의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모여져서 출범하게 되었지요. 2011년 당시 10여 개 남짓한 작은도서관들이 모여서 시작했지요.

## 글마루도서관의 탄생

제가 살던 아파트 대표 회의실에 주민들과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월 1회 회의를 하고 나면 별 쓰임이 없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고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체력 단련실이나 탁구장으로 만들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굳어지는 것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아, 도서관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책을 구입하고 서가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참 전국적으로 기적의 도서관 건립 붐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대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군데 찾아다니며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지방의회 의원들과 협의하게 되었고 어렵게 예산을 마련하여 리모델링 먼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천여 만 원을 들여서 1차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을 꾸며 글마루 작은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은 청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 받은 분을 사서로 모셔서 주민 공간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루어진 일인 만큼 전담 인력은 아파트 재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따라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 작은도서관협의회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놓자 주민들의 굉장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찾아왔던 주민들이 공간을 잘 꾸미고 아이들을 위한 책, 어른들을 위한 책을 잘 구분해서 서가를 정리해 놓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음악회나 문화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담 인력으로 참여했던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만이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까지 참여하여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소문은 퍼져 여러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아파트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순전히 열심만 갖고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고 앞서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계신 선배 관장님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작은 공간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몇 명이 가더라도 격려도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는 공감대를 만들었지요. 무엇보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어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이 먼저였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열악한 공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찾아나서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는 길에 연락처를 얻기도 하면서 공간을 보고 다음 모임 날짜를 잡으면서 협의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협의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몇 차례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뜻을 같이하는 다른 도서관을 더 찾아내서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된 것이 2011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상의를 했던 분은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님이시죠. 관장님을 찾아뵙고 이리이러한 도서관을 만들려 한다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지 눈여겨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또 참도깨비도서관 이종수 관장님도 함께 했고요. 청주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유영경 관장님과는 전담 인력 파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전담 인력 파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나중에 시의원도 하시면서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롱이네도서관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도서관 활동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하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활동, 동화를 통한 연극이나 동화 구연 등 다양한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초롱이네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없었더라면 글마루도서관도 활기를 찾기 어려웠겠지요.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초롱이네도서관 총대장으로 불리던 윤송현 선생님도 2010년 시의원 활동을 하고 계셨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요. 도사모(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라고 의원 연구 모임도 윤송현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던 것이니까요.

그런 기운을 얻어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만들어진 거죠. 정관과 회칙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책 잔치 행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열리고 있는 책 잔치

는 '가을동화잔치'를 벤치마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롱이네도서관과 몇몇 주체들이 모여 '가을동화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도서관 이용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하여 다양한 가면극이나 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행사를 시작으로 시립도서관과의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하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공간을 맡겨야 하는데 어느 주체가 맡아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우리 작은 도서관협의회에 일부를 맡기면서 시작되었지요. 최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여 개 되는 도서관들이 각각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나왔죠. 부스를 만들고 전시회와 공연, 구연동화, 그림자극 등 여러 가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시와 협의회가 협업을 한 최초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작은도서관협의회 소속 작은 도서관들이 참여를 안 했더라면 힘들었을 거예요. 인원 동원이나 공간 체험면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시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다음에도 계속 의뢰가 왔고 협의회 차원에서 잘 치러냈지요. 청주시 차원의 작은도서관 책 잔치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 공공도서관과의 연결고리

한편 글마루도서관에도 신경을 많이 썼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원을 많이 끌어냈어요. 열심히 바짓가랑이도 잡고 서민 아파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가 읍소를 했지요. 부자 아파트보다 더욱 필요한 공간이면서 곧 시민이 될 아이들이 많은 공간이라고 설득했지요.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누린다면 어느 곳에 세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동의를 얻어내고 예산을 끌어왔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도서관 사람들은 '글마루는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때는 조금씩 노력을 해가면서 자기 공간을 풍요롭게 채워나가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말했지만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공식적으로 시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정보를 일부만 가지고 있을 때는 형평성을 따질 일도 없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나면 누가 지원을 받고 못 받느냐를 떠나 최소한의 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했죠. 이후에 작은도서관 조례로 만들어졌지만 제가 초대 회장일 때 시립도서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례 제정 공청회에 주민들과 함께 다녀왔던 기억이 나네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면 유모차라도 끌고 올 수 있으면 다 오시라고 해서 참여했지요.



그런 힘이 바탕이 되니까 의원님들도 의욕을 가지고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대로 만들자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계속 보강 강화되고 세련되게 조례로 변해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뿌듯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만 해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잠식해 들어온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여러 해 거치면서 청주시 공공도서관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공공도서관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요. 오창, 산남동, 성화동, 개신, 죽림동, 용암동 곳곳에서 작은도서관 설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공립 기관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노력했지요. 주민들이 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시는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작은도서관 지원과 아울러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른 권역에도 용암동 시립도서관 같은 공간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생기고 차차 권역별로 많은 도서관이 생기게 된 거죠. 분평동에 있는 서원도서관, 금천동의 금빛 도서관, 가경동 가로수도서관, 내수도서관 등 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데에는 우리 협회회의 공도 조금 있다고 하겠지요.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노력이 만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작은도서관협의회로 발전시키면서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 변화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고민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작은도서관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 아이들이 어렸고 동네에 많은 영유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출생률마저 떨어지면서 어느 아파트를 가도 아이들이 안 보인다는 점이죠. 새로 건립된 아파트에 사는 젊은 사람들 말고는 10년, 15년 넘은 아파트에 가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영유아와 초등학생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인데 그런 분들이 안 보인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시대와 괴리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변화된 시대에 맞게끔 작은도서관들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시민들과 이 공간에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릎을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은도서관을 만들면서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 엄청난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역할을 다했지만 작은도서관의 현실은 어떤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언제까지 지원금에만 기대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정체성과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처음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어른이나 청소년보다 영유아, 초등학생들, 갓 아이를 낳은 어머님들이 그 공간을 찾았던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찾았던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작은도서관이 생겼다는 점을. 지금은 그런 요구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차이점을 보자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 복합문화공간들이 생기고 작은도서관이 사장되고, 명맥만 유지하는 곳이 있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과거처럼 똑같이 필요성이 있고 똑같이 이용할 것이라면 별 상관이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개신 주공1단지 아파트만 해도 어른들이 많아졌고, 그 어른마저도 도서관을 찾는 분이 드물고 영유아 그림책, 동화책보다는 어른들이 책 읽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의 시대에 맞는 변화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맞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저마저도 현역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미션을 바로바로 이행했는데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했던 문제의식을 글마루도서관뿐만 아니라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분들을 만났을 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협의회로 들어와서 정보를 얻고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협의회에 와서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 듣는 게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왔던 시절, 정보가 알차고 여기 와야만 또 다른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아니라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시대에 맞는 도서관 역할과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서직 주무관이나 팀장님들한테 미션을 하나씩 줘라. 청주시 도서관 정책 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한 가지만 써내라고 해달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서직한테 공통되는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걸 중심으로 정책화하면 좋지 않겠느냐고요. 결국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을 준비해야 하지만 다시 한번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규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2011-2012년 회장 역임



두번째

# 쌍샘 자연도서관

## Baek Young Ki

질문하는 사람  
이재복 박미라

대답하는 사람  
백영기



## 백영기

### 주민 도서실 '느티나무'로 시작

저는 쌍샘 자연교회 목사이자 봄는 생태자연도서관의 관장 백영기입니다. 봄는도서관은 모충동 쌍샘이라는 동네에 교회가 있을 때 생긴 곳입니다. 1992년에 들어가서 일 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책 읽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열악했지만 책 만큼 좋은 친구도, 좋은 스승도 없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책을 기증 받고 일일 찾집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주민 도서실 '느티나무'라는 이름으로 열었죠. 1993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민중교회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만 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거죠.

공부방과 탁아소, 작은도서관까지 하는 사례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 몇 년 정도 하다 보니 지역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생겼지요. 작은도서관들이 모여 조직이 만들어지고 정부에 요청도 하면서 작은도서관 지원법 아니면 규정들이 만들어졌지요. 처음엔 '문고'라는 말과 '작은도서관' 이름이 적합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도서관'이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어느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문고 형태의 운동도 있었던 것 같고 인정은 못 받아도 도서관이라는 정신을 밀고 나간 모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대출부터 했죠. 카드에 수기로 적으면서 대출을 했죠.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독서 캠프, 다독왕 선발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책 읽기 모임과 더불어 지역 사정에 맞게 한글 교실도 열었어요.

### 청주 작은도서관과의 만남

철당간 광장에서 헌책을 새 책으로 바꿔주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청원군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강내면에서 들꽃방도서관을 하는 홍근옥 관장님을 만났는데 한 2년인가 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분이 도서관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같이 교회에서 하는 도서관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곳도 있었지요. 오창에는 신도시여서 아파트가 많아서 작은도서관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청원군 작은도서관협의회에는 사서를 위한 교육과 함께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도 있었어요. 청원군의원들을 참여시키고 조

직적으로 책 잔치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재미있게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청주시와 통합이 되고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생겼습니다. 통합 전에 몇 번의 모임을 가졌던 것 같고 통합하는데 약간 다른 의견들도 있긴 했어요.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었으니 청원군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 통합을 한 것인데 초대 회장을 뽑는데 여러 의견들이 오갔죠.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님은 청원군이 먼저 시작하고 오래 끌어왔으니 통합 회장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청원군협의회에서 회장을 맡기도 했으니 통합에 걸맞게 청주에서 회장을 맡으면 좋겠다고 하여 글마루도서관 김용규 관장님이 초대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협의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통합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오창지역은 청원군협의회 때보다 참여가 저조하거나 소극적이긴 했지만 작은도서관만으로 시립도서관을 상대하기에는 벽찬 감이 있었죠.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이다 보니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최선이었죠. 청원군협의회 때도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들어야만 작은도서관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지원도 해줄 거 아니냐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에 맞춰 협의회로 가면서 대응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는 통합 청주시이지만 전주나 김해 같은 곳에 비하면 형편없었어요. 갈수록 조금씩 더 향상되고 나아져야 하는데 의지가 없는 건지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정이나 법적인 지원면에서 부정적이었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만도 어려운 때였지요. 통합이 되고 나서 도사모(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가 있었지만 법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웠지요. 부천이나 전주, 김해 같은 곳에서는 공립형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실무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정치도 생물이라는 말처럼 도서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고요. 보장해 주고 지원해 주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처음에는 관에서 왜 그걸 모르는지 안타까웠죠. 우리 도서관은 마을에서 시작한 것이기에 교회 도서관보다는 마을도서관이라는 데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 도시에서 시골로

그러다가 청주 도심에서 낭성면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민이 한 열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거의 노인분들이었으니까 작은도서관이 필요한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유동 인구가 없는 곳에는 도서관을 없애는 때였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왜 들어왔지, 살려고 들어온 것 아닌가, 사람

사는 마을이라면 도서관은 정말 필요한 것 아니냐, 효율이나 성과로만 따지지 않은 사람 사는 마을의 도서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아서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도서관은 공공이기도 하고 책은 무겁기도 하니 대충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의견이 모여져서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잔치도 하고 후원자도 모집하면서 버텸었지요.

시골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지는 않아서 특화된 도서관으로 하자고 했지요. 그래서 어린이책과 생태 쪽으로 전문화해서 가자고 했어요. 함께 시작했던 교우들도 그런 마음이었고 운영위원들도 그런 도서관 정신에 공감해서 시작했지요. 주민들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책을 비치하거나 대출은 기본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주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마을 안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작은도서관을 꾸려왔습니다.

봄눈작은도서관을 지을 때 청주시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후원자들의 많은 지원도 있었고요. 코로나 때 마침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아주 좋았어요. 문제는 상호대차로 편리하게 책을 받아보고 반납도 하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책을 주문하면 책만 가지 사람이 오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책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적인 양식이란 면에서 무척 소중한 것이잖아요.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 큰 건물을 도서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교우들 가운데 의문을 품는 분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면 활성화가 되고 사업 성과도 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작은도서관을 지을 때 삼성 재단에서도 같은 비용 대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시골은 이용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같은 값이면 도시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공감하죠. 그렇지만 여기처럼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의 정신도 성과나 효율, 큰 업적 보다는 작은도서관의 존재 가치와 의미에 더 비중을 두고 시작했던 만큼 지금까지 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안 된다고 해도 마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여기에 들어올 때는 9가구였던 동네가 지금은 70가구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을이 더 커졌죠. 마을이 살아난 것이죠. 이곳에 오면 살 수 있겠다, 재미있겠다, 아이들이 있어도 걱정이 없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한 가정 한 가정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마을로서, 공



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운영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나 조직도 그렇고 어떤 흐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즐기고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 책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나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작은 서가에도 생명력이랄까, 그 존재감은 식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돈을 보고 하거나 작은도서관이나 마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 주위에는 거의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힘은 빠지고 예전 같지 않지만 앞으로 책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 소중해지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 믿어요.

#### 작은도서관 정신으로

시립도서관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작은 도서관 실무자들이나 관장님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도 살아남아서 지역에서 존재를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숫자로는 변동이 생기고 예전 같지 않겠지만 작은도서관을 사랑하는 관장님이나 봉사자, 활동가들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존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바람은 정치인들이 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시립도서관, 관과 민이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잖아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구분해서 볼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자꾸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기만 생각하면 여기보다 저기가 낫고, 이런 것들을 정말 넘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수준이 나아지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좋아지면서 주민센터나 마을회관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추세이거든요. 책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이 상주하게끔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은 현재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청원군협의회에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열심히 활동하다가도 아이들이 크면 떠나버리는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커도 작은도서관에 머물면서 여전히 사랑해주어야 하고 활동도 해주어야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작은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까, 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틈새를 열어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소박하지만 정감이 있고 작은도서관의 정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렇게 시골에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주거나 어린이나 청소년은 물론 가족별로 독서 캠프를 열어 책을 매개로 하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접목해서 작은도서관만의 특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가 생태전문도서관으로 시작했듯이 작은도서관마다 특색을 가지고 차이점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영기

청원군작은도서관협의회  
2013-2014년 회장 역임



세번째

# 초롱이네 도서관

# Oh Hye Ja

질문하는 사람  
이재복 박미라

대답하는 사람  
오혜자



## 오해자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오혜자입니다. 지금의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청도협)가 있기 전에 청원군협의회가 있었고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있었는데 통합을 앞두고 각자 해산총회를 했었지요. 각자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걸 종료하는 식을 가졌던 거죠. 서로 정관과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직들을 해산해야 했어요. 12월에 똑같이 해산총회를 했죠.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새로운 조직을 꾸리게 되었고 통합 1대 회장이 되었어요. 청원군협의회와 청주시협의회가 통합했지만 2015년만 통합 청주시라고 불렀고 다음부터는 그냥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라고 불렀습니다.

### 1999년 1월생 초롱이네도서관

1999년 1월에 열었어요. 그때는 대학입시에 눈술이 도입되면서 독서눈술이란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책을 좋아하는 모임이나 어린이책 문화에 대한 의식들이 생겨났죠. 초롱이네도서관도 책사랑방 같은 정도의 상상을 하며 만들었어요. 책 모임을 이어가 볼까 하고 생각하던 때였는데, 대전에 있다가 청주로 참도깨비도서관이 왔을 때 책 모임을 같이 했어요. 그때 어린이전문서점 서당이라는 곳에서 모였어요. 김순희 서당 대표님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역에서 어린이 문화나 책 읽기에 관심이 있으면서 새로운 책 읽기를 하면 좋겠다고 시작한 모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책 100선인가 해서 전시하고 이가를 선생님을 초청해서 작가강연 같은 것을 열었어요. 그 모임을 기반으로 2000년부터 가을동화잔치를 시작되었죠.

저는 198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졸업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정에 있었던 관계로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이나 선후배들과 긴밀했어요. 작은도서관을 열 때는 생협이나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결혼하고 잠깐 동안 지역을 떠났다 오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깊게 했던 시기였어요.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씩 실험도 하면서 풀고 왔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작은도서관법에 문고라는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는 다 문고였어요. 작은도서관은 그냥 임의로 사용하는 문화적 명칭이라고 할까요. 문고를 책 사랑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시에 등록을 하고 통계 자료에 공식적으로는 문고였어요. 시와 협력 관

계를 맺고 활동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작은도서관 명칭이 공식화된 게 2008년이니까요. 그 이후에 도서관을 연 분들은 작은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협력관계로 개관한 것이고 그 이전 분들은 주민들에게 공동체 친화공간의 성격인 문고라는 이름을 병용해서 썼죠. 초롱이네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란 이름을 썼지만 '작은'이 들어있지는 않았어요. 작은도서관등록증이 아니라 문고 등록증이었어요.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바뀌고 다시 바꾸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역사적인 기념품인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있어요.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었고 지원은 없었고 지위는 있었어요. 법적으로 주민 편의 시설이자 독서 진흥을 위한 시설로 구분되어 희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개설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었지만 지원은 없었어요. 등록할 때도 담당 주무관이 엄청 서류를 찾으면서 그런 게 있느냐고 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열 몇 개 정도 되는 문고가 있었는데, 백영기 목사님이 하는 쌍생문고도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는데 담당자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시와 협력 관계에 있었던 충북작은도서관협의회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도서관 중심이고 충북을 지역으로 하다보니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국조직의 지부였는데 개별적으로 생긴 시군의 작은도서관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것인지 각각 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했지요.

2010년에서 14년까지 한 곳 두 곳 세 곳,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곳들이 청주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꾸리겠다고 했어요. 작은도서관이 많은 책보다 한 권이라도 읽고 싶은 책을 권한다가 누구라도 편히 쓸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좋지 않겠냐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시작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한두 곳 생기고 기존의 참도깨비도서관 같은 몇 곳이 모여 의견을 맞출 만한 시기가 됐을 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합의가 돼서 한 열 몇 곳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수는 기억하기 어려워요. 청원군에도 흥근육관장님의 들꽃방처럼 여러 곳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창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협력해서 청원군협의회를 꾸리게 된 건데 오창이 그때는 파이팅이 넘쳤어요.

2009년에 공동주택법에 의무설치 기준이 있는 법적 대상이 됐어요. 2010년 이후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주민시설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니까 갑자기 교육도 시작하고 할 일이 많아졌죠. 그렇게 생겨난

작은도서관이 늘면서 협의회를 꾸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2010년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역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곳이 적어서 전국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했어요. 2010년에서 11년까지 2년간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상임이사 활동을 했어요. 그 후 2년은 마포구립작은도서관 총괄관장을 겸임했고요. 한 4년간 서울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청도협의 책임을 맡겠다고 2015년과 16년에 회장을 한 것은 전국 동향을 보고 겪은 경험 때문이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관계들을 가져왔다 싶어서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

처음 청도협을 만들 때 우리 지역에서 논의와 노력을 통해 규합한 작은도서관이 15개 정도 였고. 2009년 이후 청주시에 이어 충북도 전수 조사를 했어요. 대부분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방안 연구」라는 책자에 청주의 작은도서관 운동의 시작과 역사에 대해 나오는데 개설 신고는 할 수 있는데 폐관이나 경고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폐관에 대한 조항이 없고 권고라든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름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지원이 없으니까 어렵다 싶으면 다른 일로 업을 바꾸기도 해서 수치만 늘어나는 거죠. 2010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가서 실제 운영하는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매년 필수로 들어가서 시장의 의무가 되다 보니 실태 조사를 거쳐 폐관 권고가 이어지고 수치가 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민관협력간담회 정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먼저 생긴 지역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패기 넘치는 활동가들이 확 드러나다 보니까 협의체가 훨씬 더 조직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우리보다 교육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 과정이나 봉사자 교육부터 시작했어요. 통합되기 전 청원군오창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서관 분들이 문화예술과인지 평생교육과였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을 내어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내니 힘을 딱 받았죠. 2014년에 통합하고 나서 그때 청원군의 사례가 반영되어서 2016년인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되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청원군의 민관 협력이 훨씬 앞서갔던 거죠. 특히나 오창지역에서 지역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혔던 것 같아요. 세종시도 아파트 건립하기 전에 국립세종도서관이 먼저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는 큰 규모의 문화시설이 짓던지 지원 정책을 풀거나 해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협의회가 생기면서 엄청 힘을 많이 받았어요.



#### 문화적 동질성도 같이 가져가는 작은도서관

혼자서 운영해 나갈 때는 1부터 100까지 다 만들고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하나의 큰 기관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건데 협의회가 만들어지니까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의지가 되었어요. 10년의 과정이 협의회에 있었잖아요. 글마루도서관이 초롱이네도서관의 영향을 받았듯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니까요.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개별 도서관에는 부담과 역할을 나누어야 하면서도 내 것을 좀 내놓아야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했어요. 2000년에 초롱이네도서관이 이 공간으로 올 때도 어린이책을 읽는 어른 모임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문화적 욕구가 커지는데 사회 문화적인 기반이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 초롱이네도서관 같은 공간, 사립 작은도서관에 열린 공간의 틈새를 가지고 사람들의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풀어주었던 것은 의미가 크죠. 저도 시민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화 운동이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나름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예산상 출혈이 심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열매일 수도 있고요. 그런 토양인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은 책이 있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문적 동질성도 같이 가져가는 공간이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깔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논의를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열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외 아동을 위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도 여기에 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도 하게 되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바탕들이 작은 도서관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에 모여드는 선순환의 과정들도 있었는데 시의원으로서 활동한다거나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배출하는 토양 역할을 했죠. 작은도서관은 중립적인 공간이면서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여러 정파를 떠나서 시민들의 공동체가 지지받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도서관 활동을 잘한다는 것도 토론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개별적으로 우리 도서관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으로 정보 제한 차단하고 우리만 잘하는 일등 도서관이 되겠다 막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하자고 마음먹고 연 것도 지역 사회에 문화적 향유나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목마름으로 한 거라서 이런 게 많아지면 좋겠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우수한 도서관이 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우수도서관 지원제도가 생기면서 최고 우수 도서관에 700만 원씩 줬어요. 두 곳인가 세 곳에 줬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의 수가 적어서 우수도서관들이 협의하여 하향 평준화를 시켰어요.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더 확대하지 못한다고 하니 선제적으로 개수를 늘리는 데 쓰라고 논의를 한 거죠. 협의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왜 그래야 하느냐고 반문도 하고 항의도 했어요. 서로 협의해서 여러 곳이 예산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도서관장님들이 모여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게 우리 지역의 뒷심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사회가 바뀌고 생존과



결부되다 보니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자원 활동도 열정 페이로 보는 현실이잖아요. 역할에 대한 대우가 뒤따르지 않다 보니 자기 만족감이 나 자존감,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고 생각했어요. 2017년, 2018년쯤에 그런 조짐이 있었거든요. 모임을 하기가 어렵거나 도서관 지킴이를 구하는 게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도 뒷심으로 그냥 밀고 온 건데 2020년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외부 지원이나 구조적인 방법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면 개인의 의지와 공동체의 협력만으로 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민관 협력의 공간이자 의미 있는 공간으로 더 해 나갈 것들이 추려지거나 힘을 낼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이 있거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 자력으로 즐거운 힘으로

2015년에 통합 총회를 하고 2016년에 제1회 청주시 작은도서관 축제를 열었잖아요. 그걸 우리 스스로 통합의 기쁨이나 화합의 공동체성을 만들자고 제1회 축제를 열었던 것이죠. 예산도 없이. 청원군협의회 의 활동력과 청주시의 문화적인 역량을 합쳐 동아리들이 나와서 발표했잖아요. 오창도서관 개관과 함께했는데 그때 시의원과 시립도서관 관계자들이 나와서 축제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다음부터는 포럼도 열고 필요한 프로그램에 나눠서 쓰면서 책 축제라는 활동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잖아요. 그런 역량이 생긴 거죠. 고민해서 기획하고 자력으로 했던 1회 행사를 돌아보면 청원군과 청주시 작은도서관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의미가 깊어요.

그렇게 어렵게 노력하면서 그래도 유지해 온 것인데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원 조례를 만드느라 도사모(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의원들과 민관이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는 토론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모르면 좋겠는데 다 가서 보고 확인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 분야에서 실적을 내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한 명씩 꼭 나와 자기 몸을 살라서 문턱을 넘어간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자꾸 뒤로 가고 있다 생각하니 어렵더라고요.

소수 정예더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어가는 꿈

그게 우리 지역만으로 이야기할 건지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데 명만 들고 막 깨지기만 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암담한 부분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가 나오고, 특히 전주만 해도 먼저 협의회를 꾸렸지만 우리 지역보다 앞서지 않았는데 공립과 사립의 기준을 나누어 적합한 지원을 하면서 좋아졌어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려운 지점들을 파악하고 지원하면서 공공의 의무를 다 하게 했거든요. 의무적으로 수행할 소외계층이나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면서 투트랙으로 협력하고 확산하는 길로 갔거든요. 지금은 도서관 축제를 하나 열어도 민간의 자리를 엄청 촘촘하게 메우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공공에서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정책적으로 협력 안 해 온 것들이 앞서서 해 온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머리가 쥐어뜯기는 기분이 들고 고민하고 기획해 보려는 의지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바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성과들을 다 가져가도 좋다, 함께 하는 방식으로 확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화도시청주' 사업과 연계하여 동네 기록관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인 문화 기획력을 찾을 건지 그걸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싶은데 여기에도 체력이 필요하구나 싶어요. 그냥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게 좋겠다, 너무 기대거나 함께하는 것에 대한 꿈이나 상상을 계속하는 것보다 태생대로 잘할 수 있거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처음에 그래왔던 것처럼 매진하면 좋겠다 싶어요.

작은도서관 활동 26년 차지만 작은도서관들이 꿈틀꿈틀해서 모이기 시작한 걸로 치면 20년의 기간 동안 초심으로 협의회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파이팅이 좋았어요. 작은도서관들이 잘 되면 다 내쫓고 즐겁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에 동지를 얻는 느낌을 생각한다면 소수 정예여도 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오혜자

통합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2015-2016년 회장 역임



네번째

# 초롱이네 도서관

## Youn Song Hyun

질문하는 사람  
이재복 박미라

대답하는 사람  
윤송현



초롱이네도서관 총대장 윤송현입니다. 2010년에 청주시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함이 총대장이라고 하면 다들 의아해 하세요. 도서관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보면 관장님은 따로 있는데 이분은 누구야 하는 소리에 순간 총대장이라고 한 게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왜 총대장이나, 그러면 총을 잘 쏘서 그런다고 장난삼아 붙인 이름인데 그냥 부르기 좋고 아이들과 지내기 좋아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초롱이네도서관에서 대표라기보다도 뒷일을 해주고 관리해 주는 잡일 하는 역할입니다.

### 작은도서관 총대장에서 시의원으로

제가 2010년도에 청주시 의회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의원이 됐는데 당시 분평동에 서원도서관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그 얘기 하자면 좀 재밌는데 오제세 의원님이 우리 도서관에 오신 적이 있어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서관 위치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게 좋다, 분평동 아파트 단지 사이에 공유지가 있었는데 그런 데가 도서관으로는 딱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특별 예산 보조금으로 국비를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때 청주시와 협의가 잘 안되어 작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요.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위치를 정하고 설계 작업 중이었는데 그 일을 동료 의원하고 상의를 하다가 도서관 연구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막 시작되는 단계여서 용암동의 청주시립도서관과 흥덕도서관 정도 있었던 때였어요. 작은 지역별로 공공도서관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기였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경험이 없었고 논의도 부족했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에서조차 정책을 주도해서 하기는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의회는 보조적인 역할만 했기 때문에 청주의 도서관 조직이 작고 도서관 직원들 자체도 연차가 얼마 안 되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주자는 취지로 모임을 하기로 했던 거죠. 도서관은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다른 위원회에서 도서관은 후순위로 밀리고 그렇습니다. 특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로 위원회 아닌 연구 모임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특히 각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의원들을 조직해서 작은도서관과도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죠.

###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우리가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모임(이하 도사모)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예산 지원을 촉구하면서 도서관 쪽 예산 부서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어요. 초기에는 도서 구입비를 늘리는 정도로 시작했고, 예산을 지원하려면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했죠. 도사모 의원들이 협력해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당시에 김성택 의원, 육미선 의원 같은 분들이 상당히 노력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한다고 특정하지는 않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지원한다는 정도로 열어놓았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정도에서.

초창기라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의원이 되기 전에 도서관 관련 활동을 했던 분들이 계시고 특히 돌아가신 육미선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분평동에서 김영근 의원이 서원도서관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연구 모임이 잘 됐습니다. 그 뒤로 유영경 의원, 김용규 의원이 합세했죠. 김용규 의원은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도서관 사정에 밝아 무엇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하는지 잘 알았죠.

초창기 의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서 시와 교감하고 예산이 조금씩 늘었는데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런 점은 아쉽죠. 우리가 도사모 활동을 오래 해서 15년차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지방자치 의회를 통틀어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을 하는 곳은 청주시 의회밖에 없어요. 청주시의회에 도사모가 있다는 게 화제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도 작은도서관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의원 연구 모임까지 이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았어요.

도사모 의원들이 10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도서관 활동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날이 갈수록 도사모 활동이 위축되고 관심을 잃어갔어요. 그래도 열심히 활동했어요. 2, 30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구회와 토론회를 조직하거나 다른 지역을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이 잘 돼 있다 하는 김해부터 순천에서 파주까지 매년 비교 견학을 다녔어요.

의원들의 관심과 함께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했지만 정책 차원에서 앞서가는 건 없었어요.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하고 시에 촉구를 했는데

결실을 맺기 어려웠어요. 청주시가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도사모에서도 토론회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찾았지요. 이런 건 전국적인 흐름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산서부터 있던 도서관구입비를 확대하고 규모를 늘린 것 사실이지만 더 이상 늘지 않았고 프로그램 지원비도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소액으로 편성되어 아쉽죠. 프로그램 지원과 도서 구입비 액수를 늘리고 선정 대상을 늘려달라는 민원은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정산 과정도 힘들고 그런 것들 수준에서 맴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치는 것인데 아쉬운 것은 다른 지역, 그것도 늦게 시작한 도시들도 작은도서관 정책이 쪽쪽 앞서간다는 거예요.

한때는 청주시로 도서관 견학을 오던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다른 도시로 견학을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도사모도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의욕을 잃은 것 같아 아쉽죠. 또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서부터 2대, 3대까지는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계된 사람들이 의회에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관심 있는 의원들조차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작은도서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안내도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안 됩니다.

의원들은 기본 일상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시민들의 활동이나 모임을 찾고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그런 것들이 약해지지 않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도서관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권역별 도서관에도 많이 가봐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의원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 쪽의 노력도 있겠지만 의회 예산 중에서 정부 방침으로 의회의 연구 기능을 더 확대하려고 연구 모임에 예산 편성을 해주었고 연구 모임 지원비를 통해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면서 예산 확보가 성사된 결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용역 발주를 하면 도서관 예산 별도로 연구 모임별로 주제에 따라서 연구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사모에서도 청주시 도서관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전국의 도서관에 다니면서 현황을 많이 알고 연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에서 그런 연구 용역을 할 때 참여했어요. 우리가 연구 결과 제안한 핵심적인 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식의 개선이었어요. 작은도서관 중에서 꼭 필요하고 우수한 데는 지정을 해서 인력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작은도서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력이 아니겠습니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면서 도서관에 많이 참여했는데 이제는 다 자기 직업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원봉사에 의지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면 경험과 경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살아나지 않으니 점점 침체되는 거죠.

이건 다른 경우인데 열린도서관은 자치단체장 개인의 복안이었지요. 도사모에서 도서관 활동에 대해 계속 강조할 때 한범덕 시장이 야인 시절 관심을 가졌던 일본의 다케오도서관(쓰타야를 벤치마킹해서 만들름. 『지적 자본론』라는 책을 쓴 츠타야 서점 대표 마스타 무네아키와 같이 손잡고 민간의 경험을 끌어들이자 만든 도서관)을 모델로 만든 거예요. 쓰타야 서점은 일본 서점계에서 아주 혁신적인 운영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 사창하고 손잡고 다케오도서관을 만들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사례를 보고 한 시장이 도서관 직원과 시 직원들을 다케오에 출장시켜서 벤치마킹하게 했는데, '열린 도서관'이라고 해서 문화산업단지에 넣은 거예요.

원래 도서관 공간을 만들자고 한 게 아니라 복도의 남는 공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거기를 도서관처럼 운영한다고 뭔가 새로운 발상처럼 시작한 것인데 지역에서 도서관계하고 소통하거나 이야기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시립도서관 직원들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시립도서관 본부장도 제일 국장도 공식 회의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는데 그냥 제껴 놓고 한 거예요. 사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대출은 못 하



고 책만 보는 장식적인 도서관 공간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런 데다가 민간 위탁으로 서점에 맡기려다가 틀어져서 서점처럼 공간만 만들어놓았을 뿐이예요.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모두 응하지 않았죠. 시공사에까지 긍정적인 검토를 했는데 운영 문제로 고민하다가 옷 가게 하는 원더랜드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된 거예요. 시의 도서관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된 사업이 아닙니다. 시립도서관도 위탁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만 하고 끝이예요.

청주시에서는 열린 도서관을 청주시 도서관의 아주 중요한 자량거리로 삼으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안 되고 있으니 1년에 10억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죠.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해주면서 엉뚱한 데다가 쏟아붓고 있으니 다른 도서관 예산이야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작은도서관 운동입니다.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거예요. 작은도서관 자체가 좋은 모델이 되리라 내세울 수는 없지요. 유럽 선진국들도 공공도서관이 발전하기 전에는 민간에서 작은도서관

을 열어 활성화했거든요. 그런 운동이 번져 나가고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인정받으면서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도서관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작은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으로 편입되는 거죠. 북유럽 도서관들은 거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흡수하고 편입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작은도서관 운동을 활발하게 했지만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전부 다 밀어내면서 공공도서관을 짓고 공공도서관 직원은 새로 뽑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바람에 작은도서관의 입지가 줄어들고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상당히 다르죠. 우리나라 공무원 선발 기준이 시험 봐서 뽑는 조직이라 그래요.

경험이 많고 적성도 맞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시험 봐서 사서들을 뽑아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거예요. 도서관이 잘 운영되면 좋잖아요. 공공도서관이 많아지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공공도서관이 잘 되는데 작은도서관은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문화라는 독특한 게 만들어졌어요.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잖아요. 갈수록 아파트 공동주택 규모가 커져요. 세대 수가 많아지면서 공동주택 내에 커뮤니티 시설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문고나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 복지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책의 해' 사업을 할 때는 도서관이 형편없었죠. 충북에도 청주 시립도서관 하나 있었죠, 일각에서 도서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특히 출판계에서 먼저 나서서 문고의 필요성을 역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 그런 정책들을 받아들여서 문고를 활성화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정책적으로 지원 발표를 했는데, 당시 건설부에서 공동주택 시행 조례를, 아니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행령 안에다가 300세대 이상은 문고를 갖춘다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전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시행령만 바꾼 거예요. 건설업자들은 할 수 없이 그걸 지켜야 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문고 공간을 만들어야 준공 허가가 난 거였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 다른 시설로 썼죠. 뒤늦게 문고 시설로 운영하자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청주시의회 김용규 의원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하던 공간을 문고로 바꾼 거예요. 작은 도서관으로 거의 초기 사례입니다.

지금은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이 크다 보니 문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죠. 그런 공간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공동주택 중에서도 규준을 일정하게 뒀서 예를 들면 지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한다면 세대별로 1500세대, 2천 세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부터 기준을 잡고 작은도서관들의 운영비나 인력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세대가 1500세대 정도면 거의 1개 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공간인 거죠. 청주에도 공공도서관이 권역별로 고르게 갖춰져 있다 해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사각지대, 대규모 공동주택 내에 작은도서관을 공립형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작은도서관만이 아니라 전체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복유립으로 다니면서 도서관이 단순히 사회 한 기관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이자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면 그런 복지국가를 이루는 바탕은 단순히 정책 수립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수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함양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교감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활동의 기본이 되는 곳이 도서관이기 때문이죠. 있으면 좋고 잘하면 더 좋은 문화 시설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그 시민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윤승현

청주시 시의원 (2010년)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창립



다섯번째

# 직지문화의집 만화도서관

Lee  
Na  
Yang

질문하는 사람  
이재복

대답하는 사람  
이나양



## 이나양

### 달라진 일상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청도협) 2023년과 2024년도 회장 이었고 2023년도에는 직지문화의집 관장이자 만화도서관 관장이었고 현재는 만화작은도서관 관장으로 있는 이나양입니다. 2023년도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수 있을만큼 달라진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코비드19)를 경험했던 3년 여의 시간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집합적 행사는 멈추고 사람이 만나지 않거나 모이는 대신 비대면의 방식으로 회의하고 정책토론회도 줌으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히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나아가는 곳인데 사회적 멈춤이라는 것이 저희 조직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청도협 운영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공백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21년과 22년 회장도 공석이었고, 저도 그때 부회장이었습니다만, 부회장들이 권한대행으로 일을 하다 보니 행사, 토론회, 총회 등 꼭 해야 할 일은 했지만 위원회 활동이나 월례회 등 정작 중요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최소한의 조직을 유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국장도 22년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운영 동력이 줄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3년도 그 공백이 크게 다가왔고 개별 도서관과 협의회와의 연결성도 약해진 상황이라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 것인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 만화도서관 (직지문화의집)

만화작은도서관은 직지문화의집에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해 청도협에 바로 가입해서 활동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가 청도협의 부흥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협의회로 모이는 분들도 많았고 축제도 같이 기획하면서 들썩들썩했습니다. 저는 정책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문화위원회나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는 자주 모여서 책 잔치, 소식지 제작, 이웃도서관 견학, 워크샵 등 엄청난 일들을 할 때였습니다. 문화의집의 경우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지만 문화의집 본래의 업무와 작은도서관 업무를 같이 할 때여서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은 위원회를 찾다가 연 1회 정책 포럼을 주관하는 정책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했습니다.

만화도서관은 직지문화의집 안에 있는 도서관으로 처음부터 특화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 문화의집은 '생활 속 문화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미 책과 영화, 음악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책 관련 활동은 이미 오랜 시간 해 왔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도서관을 특화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청주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힘이 커져서 문화의집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문화의집 운영자들의 책과 도서관에 대한 열정도 한몫한 거고요. 실제로 만화책을 구입하고 운영해 보니 만화책의 장르가 엄청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책의 장르가 다양한 것처럼 만화 안에도 드라마, 판타지, 코믹, 일상, 예술, 시대극, 요리, 에피소드, 스포츠, 그래픽노블 등 다양한 장르가 있었습니다.

### 청도협과 네트워크

지금은 직지문화의집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오랜 기간 흥덕문화의집을 운영해 왔고 관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 지역의 유관 기관과 거버넌스, 의회 등 연계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청도협 회장을 하면서 연계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도협 내부는 일하는 사람이 줄면서 힘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의 성장이나 협의회 역할 면에서는 오히려 지역사회 안에서 중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23년도 24년도 지역의 많은 행사들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청주문화도시, 청주공예비엔날레 등의 행사에 대표자로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청도협이 직접 축제에 결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함께 해주었던 작은도서관 관장님들, 청도협 임원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 정책토론회에 작은도서관 몫으로 참여해달라는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아울러 '상생총복'(충북지역출판동네서점살리기협의회)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네트워킹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져 협력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충청권 등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연락이 오면 참여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실무를 담당했던 김윤숙 총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게 '연락이 오면 웬만하면 가자고,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협의회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작은도서관 내부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대외적으로 작은도서관의 대표성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외 협력 관련 역할이 늘어나는 것만큼 작은도서관 내부의 회원들의 대표성이란 면에서 중요성이 조금 줄어든 것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좋겠는데 협의회 조직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작은도서관들에게 청도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소속된 작은도서관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에게 청도협이 작은도서관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하면 애매한 대답만 나오거든요. 청도협이 개별 도서관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협의회가 안정적이지 못한 인력 구조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회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자들이 보수 없이 봉사하시는 경우가 많고 개별 도서관도 운영비 마련이 어렵다 보니 회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회비를 줄이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입장에서 보면 연회비를 받아도 회장과 실무자의 활동비는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역할은 커지는데 한계가 뚜렷해서 현실적인 대안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대외협력이 많아져서 저하고 총무님이 부지런히 다니긴 했는데 그때마다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 자율과 자발성

청도협 회장 업무가 1년, 길어야 2년인데 임기를 마칠 때쯤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기 중에는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운영자 회의와 책 잔치, 대외협력, 작동되지 않는 위원회의 일부 역할 등 달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청도협 내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힘든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협의회 안에서 역할을 나눠서 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역할도 회장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고 다른 관장님들과 나눠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진행되던 위원회가 지금은 돌아가지 않고 구성조차 어려우니 역할을 나눠서 방법을 찾아가야 덜 지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 하려고 하다가 탈이라도 나면 큰일이니 가지치기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율과 자발성에 의해서 협의회가 운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도서관별로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월례회라고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서 도서관 업무나 소식을 공유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만나서 재미있는 일을 만들고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별이든 위원회별이든 지향하는 쪽으로 만나든 엮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몇몇 책 관련 민간 단체가 모여서 청주가 을동화잔치를 20년 정도 했습니다. 민간이 나서서 책과 관련된 행사를 자발적으로 20년간 이끌어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아이러니하게도 20주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변하니 막



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쉬운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 가을동화잔치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그 행사를 20년 넘게 이끌어 온 민간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발성만은 지금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의 힘으로 끌고 온 청도협도 올해가 10주년이니까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론의 장인 만큼 이런 문제를 잘 담아서 방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지향을 추구하는 것들이 혼종되어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시기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 것을 다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의견이 나오고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고 좋았다고 여겼던 것들, 무엇을 늘리고 무엇을 줄이고 어떤 의미를 살릴 것인가? 다음 시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나양

통합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2023-2024년 회장 역임



여섯번째

# 퀸덤 도서관

## Lee Jong Bok

질문하는 사람  
이재복 박미라

대답하는 사람  
이종복



## 이종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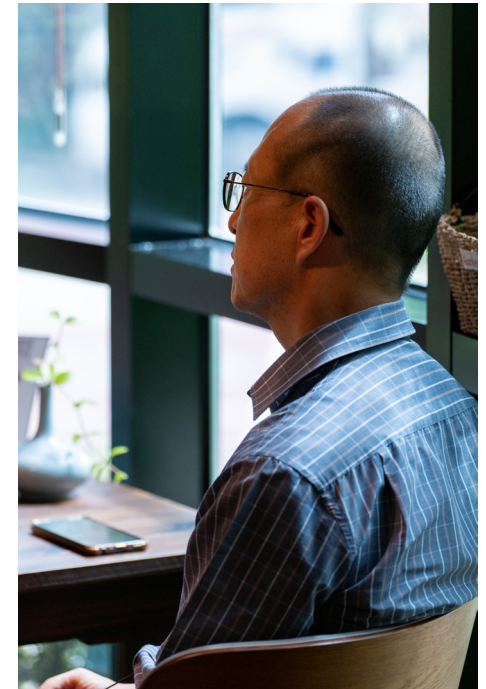
저는 산남동 퀸덤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다가 청도협 회장을 맡아서 일했던 이종복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퀸덤아파트 회장님이 도서관을 맡아서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공고를 붙였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떨어지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사람이 없나 해서 한번 전화를 했어요. 책에 대한 관심은 많았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작은도서관을 맡아서 해달라고, 힘들지 않을 거라고 해서 어찌 이야기하다가 도서관에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좀 해 볼 만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도서관을 맡아서 몇 년간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규 회장님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산남동협의회에 소속된 다른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모임도 자주 했고 서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도협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김용규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청도협 회장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간곡한 권유를 받아들이고 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는 회원 도서관이 30개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작은도서관 붐이라고 해야 하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파트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해서 해마다 한두 개씩 꾸준히 생기고 그랬거든요. 새로 생기면 저희가 가서 응원도 해주고 도움을 주기도 했죠.

처음엔 협의회가 단순한 친목 단체인 줄만 알았어요.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으로 알았던 거죠.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시립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행

사에 참여해서 부스를 만들고 작은도서관 홍보도 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책에 대한 친밀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죠. 해마다 청주시에서 좋은 책을 선정하면 서로 읽고서 어떤 게 좋은지 배틀 같은 걸 하면서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여러 행사를 했던 기억도요. 그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했죠. 특별히 무슨 목적이 크게 있어서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지금 청도협은 어떻게 지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목적 아래 생긴 것이고 책이 다양하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뭔가 느끼고 갔으면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여질지 고민하기보다는 작은도서관 그 자체로 활동해 갔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묵묵하게 남들 뒤에서 그렇게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책이 망가지면 사놓으면 된 다지만 예산을 짜서 아파트에서 도움을 줘야 운영이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남이 줄 때는 대가를 또 줘야 하잖아요. 결과 보고를 해 줘야 하고 여러 가지로 관장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목적 외의 일을 해야 하고 본질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수가 있고 평가를 받아야 하니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지요. 저도 나중에는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했었으니까요.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요.

이종복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2013-2014년 회장 역임



일곱번째

# 참도깨비 도서관

## Lee Jong Soo

질문하는 사람  
이재복 박미라

대답하는 사람  
이종수



## 이종수

### 어린이문학의 발견

1997년 참도깨비도서관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종수입니다. 그동안 여러 곳으로 이사 다니긴 했어도 여전히 작은도서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처음 작은도서관을 하게 된 것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나 의기투합해서 만들게 되었죠. 첫 직장은 출판사로 시작해서 어느 학원 자기표현연구소에서 취학 전 아이들과 지내다가 다른 학원으로 옮기려던 참에 쉬고 있을 때 전공과는 무관하게 제약회사 영업일을 하고 있던 친구와 만났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는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하소연과 함께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게 되면서 작은도서관으로 마음을 모아던 거죠.

둘 다 국문학을 전공했고, 나는 시를 쓰면서 자기표현연구소에서 어린이문학에 대한 공부도 다시 했기 때문에 그 친구와 어린이문학 이야기를 했고 이원수, 권정생 선생님 같은 분들의 작품에 충격받았던 이야기 등등을 했지요. 어린이문학이 그냥 여벌의 문학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이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들'이라는 슬로건 같은 것을 본받아 작은도서관이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고 했던 것이죠.

### 대전에서 작은도서관 첫 시작

대학 동기인 그 친구가 사는 대전에서 거창하게 내 이름을 건 '이종수 독서토론학교'란 간판에 '참도깨비'란 작은도서관(그때는 문고나 책사랑방에 가까운)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으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수강생 모으고 작은도서관에 책을 들여놓았지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다가 청주에서 함께 해보자는 분들이 있어 옮기게 되었죠. 그 뒤에는 청주 곳곳으로 옮겨 다니고 충주에까지 가서 살다가 다시 청주로 와서도 몇 군데를 거쳐 정착하였습니다.

문학을 하다 보니까 전업 작가라 붙어야 할 만큼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데, 학교 강의나 도서관 사업, 원고료 등으로 도서관 살림을 해결하고 있다 보니 늘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문학이라는 자체에 그런 게 있었다 봐요. 결혼을 하고 나니 상대적으로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아직까지 작은도서관을 하고 있는 것은 책 때문인 것 같아요. 책이 좋고, 책 읽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것이 좋아 도서관을 시작했기 때문에 절박함보다는 고집에 가까

운 것으로 버티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아, 당신은 작은 도서관을 할 사람이구나' 하는 말로 해결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고민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자가 공간이 아니면 늘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 공간 마련하는 것(임대료)도 힘들지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싶거든요. 다시 또 손을 벌려 가면서 해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드니까요. 책이 늘어나고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 책을 대출하고 이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그 무언의 약속을 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1년만 더, 1년만 더! 이렇게 해서 자꾸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

### 협의회 이전에 가을동화잔치

청주시 가을동화 잔치라는 걸 몇 년도에 했더라.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님과 서당 서점 사장님, 책 활동가들이 중심으로 무슨 단체를 만들어 모임을 하면서 그림책이나 동화에 나오는 아이들이나 특정 캐릭터 복장을 하고 나와서 거리 행진하고 프로그램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 협의회의 징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때는 도서관끼리 뭉치기에는 작은도서관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가을동화잔치를 하며 교류하다가 작은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하고 함께 활동하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청주에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법이 생기고 작은도서관 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협회 아닌 협의회 차원에서 연대해 보자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하며 활동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의 관심은 작은도서관 운동과 작은도서관의 지위와 지원 조제가 같은 것이었지요.

통합시가 되면서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를 시작으로 글마루도서관 관장이던 김송규 관장이 시의원이 되고, 그 이전에 초롱이네도서관의 총대장 윤송현 시의원이 주축이 된 도사모와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오래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총대를 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관장이나 활동가로 있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한 도서관에서 오래 관장을 하면 독재를 한다는 등 왜 너만 해 먹느냐는 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뀌어서 아파트 작은도서관마저 책임지고 끌어갈 사람이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거라

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운동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작은도서관 문을 계속 열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약속들은 생겨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나 상호대차 서비스로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하는 약속이 생기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만큼 보안에도 충실해야 하는 공공의 영역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의 욕심이면서 고집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책임과 희생 아리고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게 작은도서관 운동의 맹점인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법이 생기고 아파트에도 작은도서관 이 안정화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분양 아파트에는 임대위(임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임대 아파트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끝내는 봉사하고 책임을 떠맡을 관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중간에 임대위와 마찰을 빚거나 전면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관장의 노력이나 봉사자들의 희생으로 이겨내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느냐는 문제까지 왔거든요.

작은도서관 공간이 모두에게 필요하냐 마냐에 따른 의견 충돌과 마찰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이런 갈등을 중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작은도서관협의회나)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초롱이네도서관이나 참도깨비도서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본인만 괜찮다고 하면 끊임없이 어떻게든 끌어갈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운동은 꾸준히 공동체가 말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비근한 예로 사회단체나 교회 같은 데서 도서관을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치단체에서 만들더라도 작은도서관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부속시설처럼, 쉽게 얘기하면 전체 운동이나 사업을 위한 결다리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용한다는 것이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자를 따로 교육한다거나 협의회 회의에 보낸다거나 프로그램 개발에 쏟아붓지 못한단 말이에요. 작은도서관 실무자라고 하지만 안팎으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곳 본연의 직무를 해야 하고 도서관의 활동이나 결과치도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그런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안에서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 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설립 주체에 따른 작은도서관들의 실태는 어떻게 서로 다른 작은도서관들끼리 성격을 이해하고 연대하고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걸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끊임없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뭔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고집스럽게 끌여가는 것보다는 공격적인 공간에 맞는 책임과 함께 공공도서관과 어떻게든 협조를 끌어내고 정책 또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책 읽는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책 때문입니다. 작은도서관 사서 또한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으려고 대출을 하고 동아리를 만들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도 책 읽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가를 꾸미는 것부터 모임을 만들고 지원할 것인지, 공간을 내어줄 것인지도 책이 기본입니다. 책 읽는 공간에 머물기 때문에 자꾸만 책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문학을 발견하고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언을 만들어내는 것도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전업작가이고도 한 저에게는 작은도서관이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책을 꾸준히 읽고 동아리 분들이나 또 다른 독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단순 봉사자나 관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작은도서관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켜온 것입니다. 앞서 말한 도서관 정책이라는 것도 작은도서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자생적으로 커온 만큼 공동체 속에서 발전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공간이 쉽게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그 어떤 민주적인 공간보다 훌륭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니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들고 아파트 관리 규약을 새롭게 만들고 지원 방법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싸워왔던 게 그나마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무시할 수 없는 지위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 사람들에 치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읽고 뭔가를 얘기하고 토론을 하며 어떤 주제별로 연대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어떻게든 운용하면서 지키는 공간이 늘고 비워둔 채로 다른 용

도로 전용되고 상처를 입고 돌아누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뜻 같이 했던 관장님들 아니고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왜 필요한지, 지금의 고민만으로도 충분이 괴롭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초창기에 운영자 회의를 하면 늘 책을 소개하고 책을 통해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책 이야기를 꺼내 드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힘들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만큼 활동 위주로 얘기하고 아쉬운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책 잔치를 하더라도 책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책 읽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 해 전에 청주동물원에서 책 잔치를 할 때 주제를 동물 관련 책들로 가려 뽑아 전시하고 동물원에 책을 기증하고 동물원 우리 앞에서 동물들과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를 했던 것처럼요.



## 새로운 대안 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란

공동주택법에 맞게 생긴 공간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설 때는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될 것 없이 운영될 것 같았기 때문에 공간에 들어서면 마냥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의 어느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가 붙어있는 곳에서 도서관 개방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나 가까운 아파트 도서관에서 임대위와 마찰을 빚어 공부방으로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비로 충당하는 당연한 공간이었다가 지금은 왜 이 공간을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해야 하느냐고 반대 세력이 생기고 배척한다고 하니 슬픈 생각마저 듭니다. 세대가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니 서로에게 지치는 거죠. 이러려고 작은도서관 운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 큰 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기 집에 책이 많아서 작은도서관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와 물을 때는 그런 고민 하지 말고 책만 열심히 읽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을 읽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대신할 여러 매체가 생기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서 작은도서관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끝내 어떤 대안 공간에서 만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공간만으로도 벅차고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간이라도 잘 살려내서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는 마음을 더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즐겁게 끝내고 싶은 생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종수

통합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2017-2018년 회장 역임



여덟번째

# 들꽃방 어린이도서관

## Hong Geun Ok

질문하는 사람  
이재복

대답하는 사람  
홍근옥



## 홍근옥

### 어린이책 공부와 작은도서관

청원군작은도서관협의회 시절에 강내면에서 들꽃방도서관을 하다가 지금은 보은 회인면에 내려와서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홍근옥입니다. 2003년도에 들꽃방어린이도서관이라고 처음 개관했는데 독서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청주대학교에서 독서 교육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님이 강사로 오셨었어요.

오혜자 관장님이 그때 분평동 주공 아파트에서 거실을 개방해서 작은도서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강내면 다락리 강내초등학교 옆에서 살았는데 시골이다 보니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린이책 공부를 하다 보니 시골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도서관에도 오래된 책들만 있어서 동네 아이들과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노는 분위기에서 공부방을 운영했어요. 그러던 차에 학교 옆에 자활인가 어딘가에서 공부방을 열었는데 교실도 아닌 울타리 바깥에 컨테이너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많아서 봉사하면서 책 읽어주고 공부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사게 되고 읽어 보니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좋은 책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아이들한테까지 읽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거실을 개방했어요. 거실과 살림집이 붙어 있으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원대학교 옆 수정아파트 13평짜리 1층을 얻어서 2003년 1월에 정식 개관을 했어요.

### 들꽃방어린이도서관

그쪽으로 분가해서 도서관 운영만 하는 걸로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들꽃방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것은 2013년 1월이었죠. 제가 청주에 왔을 때 아이들이 2학년과 유치원생이었어요. 육아 때문에 쉬고 있다가 다시 시작한 거죠. 충주에 살 때부터 책에 관심이 있을 때 학교 후배가 낸 서점에 다녔어요. 그때마다 너무 아닌 책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책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요. 거기 서점에는 문제집, 전과 위주로 팔다 보니 좋은 어린이책이라기보다는 출판사에서 직영해서 갖고 오는 것들로만 있어서 제가 좋은 책을 접할 수 없었던 거죠. 후배네 서점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기는 했는데 좋은 책을 만나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독서 지도를 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가게 된 건데 신세계를 맞본 거죠. 그때는 청원군이 면적이 넓어서 청원군 내 도서관이라고 하면 미원에 있는 교육도서관밖에 없었어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작은도서관 전국협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말이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개인이 하는 도서관이 저하고 오혜자 관장님과 이종수 관장님, 이렇게 세 군데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전국 작은도서관협회에서 활동을 했지요. 그 이후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는 말들이 생겨나고 청주에도 구법원 앞에 어린이자원도서관인가가 처음 생기게 된 거고 그 외에는 없었어요.

한참이 지난 뒤에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넣어야 한다는 법이 생기면서 오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작은도서관들이 생겼죠. 청원군에서 같이 모임 할 때는 백경길 선생님이 제일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준비모임 한 지 1, 2년 정도 할 때는 안 오시고 2010년에 공식 창립할 때 들어오셨었어요.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청원교육문화연대라는 게 있었었어요. 성기정 선생님이 사무국장이었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죠.

청원교육문화연대에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오창에 도서관이 생겨나면서 준비모임이 분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청주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된 데는 청원교육문화연대에서 지원받은 것들이 있어서 오창에서도 도서관학교를 할 수 있었고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오혜자 관장님이 롤모델이었고 초롱이네도서관에서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을 개관했던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 가서 책 읽고 토론하고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롱이네도서관에 젖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들꽃방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던 셈이죠. 전국 작은도서관협회의 회원이어서 그쪽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연수에 참여하고 활동하게 된 거죠. 밑 빠진 독에 물붓기거든요. 그때 미리 알았다면 정리했을 텐데, 당시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강사 활동해서 버는 돈은 다 갖다 퍼붓는 것이었거든요. 남편이 말리지 않고 협조해 줬으니 할 수 있었던 일이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역력이 없는 것이었죠. 어디서 지원받으

려고 해도 지원이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 쉬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지원 받은 게 전국어린이도서관협회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에 엄마가 있다'는 제목으로 받은 도서관학교 예산이었어요.

아마 10회 정도 진행했는데 들꽃방어린이도서관에 온 엄마들이 거의 3, 40명 정도였어요. 지금 가도 시골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게나 많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청원문화교육연대 대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시골에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품앗이 운동 효과였던 것 같아요. 강내에도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대학교 나오고 교육받은 분들이 뭔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영어 전공하신 분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미술 전공하신 분은 그림으로, 음악 하신 분은 음악으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중국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67개 프로그램이나 할 수 있었어요. 하루에 한두 개씩 꼬박꼬박 할 정도였어요.

작은도서관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을 하나씩 짓는데 문제는 옥산에 도서관이 생기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투여하게 되니 엄마들은 도서관에 더 좋은 프로그램 찾아다니다가 들꽃방에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다가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 4학년, 5학년만 되면 도서관에 안 오세요. 도서관 활동이 엄마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고학년이 되면 3,4년 열심히 활동하다가 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면 또 다른 구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서너 번 되풀이 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더라고요. 다른 도서관들도 솔하게 겪었을 거예요.

2006년, 7년. 2010년까지는 활발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초대 회장을 맡기는 했는데 마침 병이 왔어요. 서너 번째 엄마들 빠져나가고 지쳐있을 무렵에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계속해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청원작은도서관 준비모임에서 도서관학교를 진행하고 우리 도서관에서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빠지기도 그렇고 애매했어요. 일단 창단식은 하기로 하고 제가 초대 회장 맡아서 1년 정도 했을까요, 몸이 안 좋아져서 1년 했나? 그러고는 몸이 안 좋아져서 백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맡으셨어요.



#### 다시 시골로 이사 와서 작은도서관

도서관은 청원교육문화연대에서 맡아서 해보겠다 해서 건물값만 받고 6천여 권이 넘는 책과 그 안에 있는 기기들을 전부 넘겨주고 이사 왔어요. 들꽃방이란 이름 그대로 한다고 해서 넘긴 거죠. 2년 하시는 동안에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나중에 2년 되더니 문을 닫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나중에 책이라도 다시 가져오자고 가봤더니 책들은 빨빨이 흩어지고 좋은 그림책들은 사라지고 동화책들만 남아있더군요. 그 책들이라도 갖고 오겠다 해서 회원면 주민복지센터에서 공간을 하나 내주어서 그쪽에 갖다가 놓았죠.

오장환문학관 옆에 해바라기 공작소라는 건물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해바라기작은도서관을 열었어요. 거기도 시골이다 보니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격차가 많았어요. 제가 도서관 하는 동안 아이들 간식비 한번 받아본 적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보은이라는 데에서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작은도서관 개관하면서 등록 1호였어요. 공무원들이 서울에 연락해서 여기에 왔을 때도 완전히 제가 작은 도서관 개관하면서 등록한 게 1호였었던 거예요. 그렇게 3년, 4년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도서관이 크려면 내가 빠져야겠다 싶어 관심 있는 회원 분에게 넘겼더니 그다음 해부터 이장님들이 딱딱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동화 작가 홍근욱**

도서관 활동을 할 때는 훌륭한 작가들을 보면 굳이 나까지 글을 써야 하느냐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을 그만두고 나면서 인생 2모작처럼 재미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어린이책에 관련된 일이니 동화를 써봤으면 좋겠다고 마음먹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세종사이버대 문창과에 들어가 2년 공부했죠.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취미로 시간을 보내자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3학년에 편입했어요. 작가가 될 거라면 다 접해봐야지 하면서 동화만이 아니라 시, 웹소설, 에세이까지 두루두루 다 배워야 하니까 힘들긴 했지만 2년 마치고 나서는 중점적으로 동화만 썼어요. 동화 합평반에 들어가서 코로나 때 줌으로 동화 작가를 만나고 합평도 하면서 3년 동안 썼어요. 그러다가 2025년 《충북작가》 신인상을 받기까지 했어요.



얼마 전에 도청에서 그림책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사이버대 담당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서울협회 사람들과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님도 만났는데 아직도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골에 들어와서 살 때는 어느 정도 사회 생활 정리하고 내 몸만 살피자고 생각했는데 내 몸만 살피기에는 아직 이 가슴에서 끓는 게 있는 거예요. 책과 관련된 것들이 보이면 자꾸 관심이 가니까요. 이종수 관장님과 충북작가회의 회원들이 회인에서 시인학교를 열고 아이들 시집 하나 만들기도 하면서 도서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여기로 책을 갖고 와서 다시 도서관 개관하면서 책을 모으고 협회에서 도와주는 책도 있고 하니까 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집에 있는 책만 해도 많지만 이 지역에 도서관 하나면 충분하고 그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과 잘 꾸려나가는가 중요하지 자꾸 만들어서 뭘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홍근욱

청원군작은도서관협의회  
2010-2011년 회장 역임



아홉번째

# 길동무 도서관

# Hong Seung Pyo

질문하는 사람  
이재복 박미라

대답하는 사람  
홍승표



## 홍승표

### 교회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길동무

길동무작은도서관 관장 홍승표입니다.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와 인연은 오래 됐죠. 2012년경에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고 청도협에 가입하고 활동했으니까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회장 일을 해보기도 했으니 많이 배우고 인연을 쌓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길동무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과 책, 사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을 펼쳐가려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몸담고 있으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잘 몰라서 교회 간판을 달고 작은도서관 간판도 달았는데 상대적으로 교회 간판이 크다 보니까 여기는 교회구나 싶어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교회 간판을 줄이고 나중에는 내렸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하게 됐죠. 청도협과 인연을 맺게 되는 그 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등록을 할 때도 시에 그렇게 알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때도 성화같은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책으로 둘러놓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책에 관심이 많고 책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책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활동도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와 청원군작은도서관협의회가 통합되기 전 청원군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지 않아도 청원군작은도서관협의회 중심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불문생태도서관의 백영기 관장님도 그렇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작은도서관과 깊이 연관이 있고 중심이지 않았나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 숫자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몇몇 열심히 했던 분들의 의지가 있었고 활동도 많이 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제 성격이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

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거나 앞장서서 하는 성격이 아닌데, 제 아내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며 우리의 활동을 조금씩 알려줬던 것 같아요.

김용규 관장님이 청도협 회장을 하셨을 때 그분이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에 우리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찾아오셔서 가입을 권하셨어요. 같이 활동하면 정보 교환도 하고 서로 힘이 될 것 같으니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지는 관(官)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예 안 하고 힘들어도 우리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깨면서 일할 수 있게 한 계기는 김용규 회장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청도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회장으로 2년

청도협에 가입한 것이 2012년이고 실제적으로 2006년 개척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도 겪었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청도협을 만나게 되면서 작은도서관으로서 명실공히 일을 해나갔다고 할 수 있죠. 그 전에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문은 열어놓았으나 잘 안 됐고 그런 기간이 2007년부터 따지면 한 4, 5년 정도는 좌충우돌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중심을 못 잡고 고민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회장을 맡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다 보니 보조금 사업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를 폭넓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주위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런데 저도 회장을 해보니까 나중에 임원 할 사람들을 뽑을 때가 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임원을 맡아 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찾기 어려운 거죠. 작은도서관마다 여건이 비슷해서 그렇죠.

보통 작은도서관에 3주체가 있다고 말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 그다음에 공공단체 같은 데서 운영하는 도서관, 그다음에 공공주택이잖아요. 저마다 특색이 있는데 공공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입김이 너무 세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단체는 단체의 장이 따로 있어서 언제 다른 자리로 발령이 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인턴 개념을 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의 임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무도 주면서 “너, 작은도서관도 맡아서 해 봐.”하고 책임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거나 뭔가를 해도 그 사람이 결

정을 못 해요. 회의 끝나고 돌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이 늦거나 지체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회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책임과 함께 대표성을 띠는 거라 어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맡아서 두 번이나 했으니까요.

장단점은 있어요. 조용히 무리하지 않고 꾸러가길 원하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이죠. 각 도서관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한편 적극적인 활동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집중되는 도서관이 있으니 협의회는 말 그대로 각 도서관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선에서만 돕고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볼 때에 좋았던 것은 처음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김용규 회장님이나 조금 너무 앞서 나가지 않나 싶었던 이종수 회장님도 열심히 활동하셨죠. 오혜자 회장님도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협의회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늘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회장을 맡았던 뒤로 5, 6년이 흘렀는데 그때의 자료들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포럼 자료집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포럼 때도 항상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이 무엇이나에 대한 질문은 끝없이 해야 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거든요.

#### 작은도서관만의 정체성을 찾는 길

다른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대로 잘 치렀던 것 같아요. 책 잔치라든가 월례회의, 선진도서관 견학이라든지.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견학 내지 탐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마다 했죠. 거듭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협의회를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공론을 통해서 모아져야 하지만 항상 갈등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포럼을 통해 정체성 고민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2019년, 20년은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고, 문을 닫으라고 해서 사진도서관 이재복 관장님이 너무 폭력적인 것 아니냐, 해 주는 건 없고 상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문부터 닫으라고 하니 작은도서관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정도협이 나서서 지자체를 상대로, 왜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 나서서 싸워주고 조율해 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 협의회의 힘이 약해지면 그걸 개인이 가서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미 그것들이 뭔가 성과를 내고 일을 추진해 보려고 하면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협의회가 중요한 조직이긴 하지만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실질적으로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회장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개인이어서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있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협의회가 나가서 부딪쳐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서까지 어떤 타협이나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무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끝에 협의된 걸 가지고 만나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자꾸만 두드리면서 이루어야 해요. 일단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체성을 세우면서 그들과 만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습성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열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돕고 헤쳐 나가는 경험들이 쌓여야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 조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당신이 열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 조금 멀리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청도협 힘이라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으로 남는 거죠. 가까이 초롱이네도서관이 있어서 고민하는 문제를 편하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청도협 차원에서 고민하는 지점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 더 힘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공무원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자면 자꾸 만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하는데 정작 만나보면 작은도서관을 내칠 수는 없고 확 싸안고 대등한 관계에서 같이 나가자니 뭔가 탐탁지 않아 하는 느낌이었어요. 작은도서관도 공공성을 띠니까 공공도서관과 똑같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거죠. 공공성을 띠니까 우리도 공공성에 맞는 지원과 협력을 해, 그러면 누가 하라 그랬어, 니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유리하다 싶으면 같이 하자 그러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니들이 원해서 한 거잖아 하는 식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타개해 나가려면 결국은 로비라고 할까요? 어쨌든 정치인들 하고도 만나서 작은 도서관에 관한 조례나 법률을 더 공고히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로비라는 것도 다 시간이잖아요. 정보력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애정을 협의회에 쏟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각자 처한 여건이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과의 어떤 관계나 힘겨루기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할 때 늘 힘이 부치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 뾰족한 수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의 임원분들께서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든지, 혐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굽신거려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 왔을 때, 제가 반응했던 상태는 조금 격양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의회 의원들이 공손한 자세로 우리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계급적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면서 공손한 자세로 그걸 받으려고 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것이 모두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청도협이 조금 더 힘 있는 자세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저들이 볼 때는 다른 모임에 비해서 약한 표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회장이 되고 나서 만나야 해서 그런지 청도협 회장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혼자 발끈해서 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화를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화가 났어도 한 번 호흡을 더 고르고 능숙하고 여유롭게 만나면서 얻어낼 걸 얻어냈어야 회장으로서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을까 반성도 해보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 다시 길동무도서관에서

어쨌든 회장 2년 하면서 만만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원 조직을 꾸리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니까 쉽게 부탁드리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때 분위기는 회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려고 회장 시키는 거야 하는. 그래도 어쨌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1년만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 해에 마땅한 대안이 안 보여 1년 더 했어요. 돌아보면 그래도 인복이 있었어요. 지금은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이성현(산남부영사랑으로 작은도서관 관장)씨가 총무를 맡겠다고 나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도협 역사상 없었던 일일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 고마웠죠. 겪어보니 이성현 씨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서로 상의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했던 시간이었어요. 나머지 임원분들도 잘해주셨어요. 제가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임에도 역할을 맡아서 잘해주셨어요.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 하면서 넘어왔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마음 고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나고 나니 힘이 빠졌다고 할까요? 2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길동무도서관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도서관 안에서도 하기도 해서 몇 년 동안은 도서관에 좀 올인해 보자 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의에 나가거나 행사에 나가질 못했어요. 간신히 회비만 내는 정도가 되었고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시대가 바뀌어 가니 시대에 맞게 작은도서관협의회도 다른 형태로 접근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자주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중심적인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더 빠지게 되는 것도 있고 복합적인 것들이 겹쳐져서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제가 교육위원장을 했지만 뭔가 끌어안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뒤로 물러나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궁금하기도 한데 툭툭 털어내고 용기를 내서 나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회장도 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어 오혜자 관장님과도 대화를 해보고 있으니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앞이 잘 안 보이고 협의회 구조상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엉거주춤 길동무도서관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홍승표

통합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2019-2020년 회장 역임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청주시 작은도서관들의 연합체로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정책 연구 및 제언, 연대 활동, 문화 행사 기획 등을 주요 역할로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포럼 개최, 상호 정보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행복과 어른들의 성장,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며 청주시의 작은도서관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든 민간단체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 및 지원사업 정보 공유, 도서관 학교 운영과 민관 등 대내외 문화사업을 공동진행합니다.

#공공도서관 #우리동네도서관 #책문화사랑방 #마을공동체 #사람성장

## 주요 사업

### 회원사업

월례회, 송년회, 밴드(Social Network)를 통해 청주시 내 작은도서관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운영자 및 봉사자들의 연대 의식을 강화합니다.

### 교육사업

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작은도서관학교, 선진지 도서관 탐방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교육합니다.

### 도서관 활성화

지역 독서문화행사 개최, 작은도서관 소식지를 통해 독서 및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인지도를 높입니다.

### 대의 사업

작은도서관 축제 운영, 상생충북 협력, 도서관리프로그램 보급사업, 정책간담회를 통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연구하고 제언하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청주시작은도서관 현황

## 상당구

NH은누리 작은도서관  
길동무도서관  
남일도서관 이음  
너,나,우리도서관  
동남 우미린 에듀포레 작은도서관  
동남우미린폴하우스 꿈에 린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2차  
동남힐데스하임아파트 작은도서관  
디사이플스북카페  
모퉁이돌 작은도서관  
문의구룡뜰안작은도서관  
민들레 작은도서관  
바름돌역사문화교육연구소 작은도서관  
쁘레네작은도서관금천별피  
생태자연도서관 봄눈  
성무 책마루 작은도서관  
시티한빛 작은도서관  
예꿈 작은도서관  
은하수 작은도서관  
인경리 작은도서관  
중흥S클래스 작은도서관  
징검다리아동도서관  
참도깨비도서관  
책만보면콩닥 작은도서관  
청주동남NH행복주택 작은도서관  
청주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청주상당신협 마실북카페  
청주해오름마을도서관  
초롱이네도서관  
충북향토사 작은도서관  
파밀리에 작은도서관  
해품터직지도서관  
호반씨밋 작은서관

## 서원구

가든북카페 작은도서관  
가마힐데스하임 아파트 작은도서관  
개신평란채작은도서관  
광성 작은도서관  
굴렁쇠 작은도서관  
글마루 작은도서관  
꿈키움작은도서관  
늘푸른도서관  
두꺼비도서관  
두꺼비생태도서관  
맹꽁이생태도서관  
산남계룡리슈빌아파트 도서관  
산남대원칸타빌 2단지도서관  
산남부영아파트 작은도서관  
산남푸르지오도서관  
성화5단지도서관 파레트  
성화꿈터 작은도서관  
성화청개구리 도서관  
소나무 작은도서관  
썩큰도서관  
씨앗 작은도서관  
우리네 청춘도서관  
직지문화의집 만화작은도서관  
책동이꿈동이도서관  
충북대학교 병원 별책방  
퀸덤도서관  
한내들 작은도서관  
황금길 작은도서관

## 청원구

글마중 작은도서관  
나도밤나무 도서관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작은도서관  
노리울작은도서관  
덕벌작은도서관  
두드림 작은도서관  
모아미래도아이드파크 아파트 작은도서관  
밤나무 작은도서관  
상상 작은도서관  
쌍용규장각도서관  
오병이어 작은도서관  
오창대원칸타빌작은도서관  
오창롯데캐슬작은도서관  
오창우림필유 1차 도서관  
오창한라비발디도서관  
우림나눔 작은도서관  
이안 작은도서관  
주먹가위보 작은도서관  
주민도서관 글마루  
주성 작은도서관  
중앙작은도서관  
청주사진아카이브  
푸른 작은도서관  
호수마을 책방 작은도서관

## 흥덕구

NGO도서관 어울림  
가경IPARK 작은도서관  
가경자이 작은도서관  
가로수마을 작은도서관  
구루물 작은도서관  
금호에다움도서관  
도래섬작은도서관  
무지개도서관  
봉명IPARK 문고  
봉명작은도서관  
봉황은마을 작은도서관  
상상재 작은도서관  
새소망 작은도서관  
솔숲마을 작은도서관  
신영지웰시티1차 작은도서관  
쌍용에가 작은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책 읽는 마을  
와이(WHY)작은도서관\_여세  
외북작은도서관  
은세계 도서관  
정다운 작은도서관  
참새와 소나무 그림책 작은도서관  
청주국제에코컴플렉스 풀꿈작은도서관  
테지푸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함께하는문고  
호반다섯소나무 작은도서관  
흥덕코오롱하늘채 작은도서관

## 청주 청원 작은도서관 발전 과정

1994년

2015년

- 1994 서울에서 교회 중심 문고 설립 증가.  
그 영향으로 청주 교회에서도 문고 설립 활발(쌍샘문고)
- 1998 청주 시내 어린이 전문 서점 '서당' 열리고 어린이책 공부 모임 운영.  
이 모임 참여자 이종수님은 참도깨비어린이도서관(1998)
- 1999 오혜자님은 초롱이네 도서관(1999) 문을 열고 작은도서관 운영 시작  
청주 작은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의 공백 지대에서 시민들이 벌인  
독서운동에서 시작되고 확산 됨
- 2006 봉명1PARK 문고가 문을 열면서 가경E편한 문고 등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만들어지기 시작.
- 2006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개관, 작은도서관 운동 지역 단위에서 조직
- 2010 청원군 작은도서관협의회(초대회장 홍근옥 들꽃방 작은도서관 관장) 결성
- 2011 성화동 개신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글마루 도서관 개관,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중 처음으로 전담 인력 유급 채용
- 2011 청주 산남동 아파트 단지에 작은도서관 조성 활발.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결성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초대회장 김용규 글마루작은도서관 관장) 결성
- 2014 청주시·청원군 행정 통합
- 2015 통합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초대회장 오혜자 초롱이네 도서관 관장) 결성

## 청주 청원 작은도서관 역대 회장

2010년

2025년

<p>청주</p> <p>2011-2012 김용규 회장 2013-2014 이종복 회장</p>	<p>청원</p> <p>2010- 홍근옥 회장 -2014 백영기 회장</p>
--------------------------------------------------------	------------------------------------------------

통합 청주

<p>2015-2016 오혜자 회장 2017 이재운 회장 2017-2018 이종수 회장 2019-2020 홍승표 회장 2021 정미숙 회장 2021 김현선 부회장 대행 2022 이나양 박미라 부회장 대행 2023-2024 이나양 회장 2025 박미라 회장</p>
------------------------------------------------------------------------------------------------------------------------------------------------------------------------------------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주요 연보

2011	2. 21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네이버 카페 개설
	4. 5	청주시작은도서관 총회, 복대동 하늘소리한빛교실
	4. 12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칙 확정안
	9.	(구)청주시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0.	(구)청원군 - 청원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1.	자연환경 생태 순회 전시회 환경과 생명을 위한 책 순회 전시회	
2012	2. 10	청도협 소식지 '청포도' 발행 (소식지와 리플릿 예산 100만원)
	4. 16-18	작은도서관 활성화 전략 세미나, 전북사립작은도서관협의회 주최
	9. 19-23	청도협 직지 축제 참여
	9. 24	작은도서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도사모, 시립상당도서관 1층 강당
	10. 7	청도협 홍보 영상 제작
	10. 12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충청권) 문체부/(재)행복한도서관재단
2013	4. 19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작은도서관학교 수강생 모집 5월~7월/ 월 수 금 10~13시. 80시간.
	7. 13	작은도서관 학교 선진지 탐방. 파주 출판단지 일원
2014	4. 28	6. 4지방선거 정책제안 토론회. 통합청주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 NGO 센터
	6. 5	개신글마루 김용규 관장 시의원 당선
	6. 18-6. 20	마을도서관 여성리더 전문가 양성 교육, 충북여성발전센터
	7. 1	통합 청주시 출범,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7. 11	2014작은도서관 선진지 탐방, 용인 장미 도서관/밤토실어린이도서관/느티나무 도서관
	9. 3	지속가능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대전 한밭도서관 별관 2층
9. 5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밴드 개설	
2015	3. 22	2015통합 이후 첫 워크숍, 쌍샘 생태자연도서관
	3. 30	책읽는 청주 선포식
	4. 29	책읽는 청주 14회 선정도서 토론회_개신글마루
	5. 18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전국대회, 문체부도서관정책기획단/(사)작은도서관협회 주관

6. 3	청주서점조합 & 청도협 협약식
9. 2	마을도서관 여성리더 전문가 양성교육, NGO 센터
9. 8	2015선진지 견학_충남 홍성 흥동마을
12. 14	제72차 작은도서관 학교, 송촌마을 도서관
12. 29	파주 선진지 탐방, 도사모 주최, 파주 시립교하도서관/시립가람도서관/보리출판사/지혜의숲

2016	4. 18	2016 전국 작은도서관 대회, 세종 컨벤션센터
	5. 24	청도협 회칙 개정안
	5. 28	제1회 청주시작은도서관 책잔치: 안녕! 작은도서관, 오창 호수도서관
	6. 20	제76차 작은도서관 학교익산 책사랑 작은도서관
10. 25	2016작은도서관 운영자 권역별 워크숍, 충청권_천안 중앙도서관	

2017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소식지 '청포도' 첫 발행
	1. 11	제3차 정기 총회, NGO 도서관 어울림
	3. 18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운영자-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생태자연도서관 봄논
	5. 27	제2회 청주시작은도서관 책잔치: 반갑다! 작은도서관, 청주 시립도서관 앞마당
	7.3-19	2017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작은도서관 학교, NGO 도서관 어울림
	7. 3	2017작은도서관 학교: 강무홍 동화작가 -그림책 중심으로 문학과 이야기의 힘, 엄마의 품같은 작은도서관 역할
	7. 5	2017작은도서관 학교: 조은영(가치컴퍼니 대표) -작은도서관을 이끄는 아름다운 동행
	7. 10	2017작은도서관 학교: 조하연(배꼽바지는도서관관장) -작은도서관과 예술문화의 만남
	7. 12	2017작은도서관 학교: 소종민(북클럽 체홉 대표) -작은도서관 맞춤형 독서동아리 만들기
	7. 19	2017작은도서관 학교: 선진지 견학,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11. 29	도사모와 함께하는 청도협 정책간담회
	12. 8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월래회&송년의 밤, 성화주공4단지 공동부역 햇살

2018	1. 10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제4차 정기 총회, NGO 도서관 어울림
	3. 17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운영자-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초롱이네도서관

	6. 16	제3회 청주시작은도서관 책잔치: 신난다! 작은도서관, 성화동 장전공원
	6. 29	제3회 청주시작은도서관 책잔치, 두 번째 행사: 책 읽는 시민을 말하다, 청주 시립도서관
	8. 9	작은도서관 소식지 3호 발행
	8. 18	책읽는청주 선포식&맑은고을 북누리축제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체험부스 참여
	11. 9	선진지 견학: 원주 문화공간 탐방
	11. 12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청주시독서문화육성발전 유공자 표창 받음, 청주시
	12. 12	작은도서관 소식지 '청포도' 배포
<hr/>		
2019	1. 9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제5차 정기 총회, NGO 도서관 어울림
	3. 9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워크숍, 생태자연도서관 봄눈
	5. 6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과 청도협 임원진 간담회 -청주시 도서관 정책 및 도서관과 청도협 협력사업 논의
	5. 24	작은도서관 운영자 책모임: 꼬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 성화꿈터도서관
	5. 31	작은도서관 소식지 '청포도' 편집위원회 현대미술관청주 탐방
	7. 3	선진지 견학: 파주 출판도시 일원
8. 30-9. 1		제4회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함께 한 책잔치, 청주예술의전당/고인쇄박물관 일원
	10. 28	청주시 작은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11.	청주시작은도서관협 소식지 '청포도' 6호 발행
	11. 27	하반기 운영자 책모임 4회차: 똑같이 다르다(김성희), 오창 이안 작은도서관
	12. 10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송년 모임, 대한성공회 청주산남교회
	12. 26	하반기 운영자 책모임 5회차, 오창 한라꿈터 작은도서관
<hr/>		
2020	5. 16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워크숍, 생태자연도서관 봄눈
	6.	책잔치: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지양. 소규모 행사, 작은 인원, 여러 곳에서 분산 진행
	7. 15	청주시작은도서관협 소식지 '청포도' 7호 발행
	8. 7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1차시: 모두의 도서관을 꿈꾸다, 청개구리 도서관
	8. 18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2차시: 도서관 응원과 현대의 시스템
	8. 21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3차시: 마을도서관의 프로그램 계획, 청개구리 도서관
	8. 28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4차시: 지역의 독서문화생태계 생각하기, 청개구리 도서관
9.1-26		제5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책잔치: 힘내라! 작은도서관, 청주시 일원
	9. 7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1차시: 서원구 1차시, 바름돌도서관

	9. 14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2차시: 서원구 2차시, 바름돌도서관
	9. 18	2020 책잔치: 할머니와 함께하는 책놀이 1차(할머니 엄마: 과자로 얼굴 꾸미기), 바름돌도서관
9.12-26		2020 책잔치: 뽀(fun)뽀(fun)한 만화 전시회, 흥덕문화의집 만화작은도서관
	9. 21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3차시: 서원구 3차시, 바름돌도서관
	9. 22	2020 책잔치: 할머니와 함께하는 책놀이 2차 (털실로 거미줄 만들기), 바름돌도서관
	9. 23	2020 책잔치: 오리 돌맹이 오리(이안 작가 강연), NGO 도서관 어울림
	9. 25	2020 책잔치 개막 공연: 노란 우산(마리오네트 인형극), 초롱이네 도서관 -세상에서 제일 작은 한 가족 극장
	9. 25	2020 책잔치: 권포근·고진하의 잡초 치유 밥상, 생태자연도서관 봄눈 -잡초 요리로 몸과 마음을 살린다.(강연&요리)
	9. 26	2020 책잔치 폐막 공연: 이야기 원정대, 파푸아뉴기니의 돼지, 호반다섯소나무작은도서관
	9. 28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4차시: 서원구 4차시, 바름돌도서관
	10. 5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1차시: 상당구 1차시, 초롱이네도서관 -길동무. 썩큰. 징검다리. 초롱이네
	10. 12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2차시: 상당구 2차시, 초롱이네도서관 -도서관 여행하는 법
	10. 19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3차시: 상당구 3차시, 초롱이네도서관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10. 26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4차시: 상당구 4차시, 초롱이네도서관 -도서관 생태마을에 삽니다.
	10. 31	2020 책잔치: 힘내라 작은도서관- 노란 우산(마리오네트 인형극), 글마루작은도서관 -세상에서 제일 작은 한 가족 극장
	11. 07	2020 책잔치: 힘내라 작은도서관-엄마, 나 이거 입을래, 글마중작은도서관(울랑동)
	11. 09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1차시: 청원구 1차시, 글마중작은도서관(울랑동) 생태자연도서관 봄눈. 우림 나눔. 노리울. 나도 밤나무. 흥덕 코오롱 하늘채. 글마중.
	11. 13	시립도서관 간담회, 코로나로 인한 작은도서관 운영 한계: 평가지표 수정 적용 방법
	11. 16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2차시: 청원구 2차시, 글마중작은도서관(울랑동) 생태자연도서관 봄눈. 우림 나눔. 노리울. 나도 밤나무. 흥덕 코오롱 하늘채. 글마중.
	11. 21	이웃도서관 견학: 옥천 배바우작은도서관, 정지용 문학관
	11. 23	작은도서관 권역별 운영자 워크숍 3차시: 청원구 3차시, 글마중작은도서관(울랑동) 초롱이네. 우림나눔. 노리울. 흥덕 코오롱 하늘채. 글마중

12. 18	2020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정책포럼, 미디어Z 언택트시대, 청주시작은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12. 25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홍보 영상 제작, 와우팟
12. 30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소식지 '청포도' 8호 발행
2021	3. 20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운영자·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생태자연도서관 봄눈
	3. 29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시의원과의 간담회, 작은도서관 소식지 예산 삭감에 대하여
	3. 31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과의 간담회
	4. 16 청주시 용암동 시립도서관과의 간담회
	6. 시립 소식지 책뜰에 작은도서관 코너 15~20p 배정
	6. 2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스스로아카데미: 도서관과 사람(홍승표)
	6. 14 청주시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정책 토론회, 홍승표 교육위원장 토론자로 참여 -도서관 관련 정책 수립 시 시민이 주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서 교육의 중요성
	7. 7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스스로아카데미: 미디어 실습(이재표), 봄눈도서관 -내 도서관 홍보 영상 만들기1(이론/실습) C13
	7. 14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스스로아카데미: 미디어 실습(신동학), 와우팟빌딩1층 존버카페 -내 도서관 홍보 영상 만들기2(이론/실습)
	8. 4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스스로아카데미: 작은도서관 관련법의 이해(박민주), NGO도서관
	9. 1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스스로아카데미 홍보편집위원회의(박미라), 줌회의 -작은도서관의 홍보
	9. 10-11 독서대전 체험부스 참여 동부창고
	10.18-23 제6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책잔치: 손잡고 작은도서관 책잔치: 같은 장소·다른 느낌 사진전, 성화LH4단지, 5단지 광장/ 성화LH1단지배드민턴장 책잔치: 초등 만화&일러스트 교실: 즐거운 상상, 흥덕문화의 집 만화작은도서관 1층 갤러리
	10. 23 책잔치: 동네도서관의 로컬미디어 가능성, 길동무작은도서관
	10. 23 책잔치: 자유롭게 날고 싶다고? 새들을 봐!, 충북NGO센터 어울림도서관
	10. 29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스스로아카데미: 이웃도서관 견학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
	11. 03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 포럼-유튜브 생중계, 미디어Z
	11. 26 작은도서관의 밤, 초롱이네 도서관
2022	2. 9 정기 총회, NGO도서관 어울림
	4. 2 청도협 워크숍, 동부창고

10.1-11.30	제7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책잔치: 찾아갈게요 작은도서관, 청주동물원 및 청주시 일원
11. 25	청주시 작은도서관의 밤 개최, 미디어Z
2023	3. 16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 청주공예비엔날레 협약식, 동부창고
	4. 7 공예비엔날레 어마어마 페스티벌 간담회
	4. 12 정기 총회, NGO도서관 어울림
	4. 15-16 2023 청주독서대전 체험부스 참여, 금빛도서관 일원
	4.20 지속가능 청주 시민실천 네트워크 협약식
	6. 17 청주공예비엔날레 사전행사 공예마르쉐 - 책으로 만나는 공예 참여, 문화제조창
	9.1-9.3 청주공예비엔날레 어마어마페스티벌 체험부스 참여, 문화제조창
	10. 15 제8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책잔치: 만나요 지금 작은도서관, 청주 상당공원
	12.6 청주시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정책 토론회, 청주시의회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를 위한 토론회
2024	1. 14 자원순환자바캠페인 협약식,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2. 28 2024 정기 총회, NGO도서관 어울림
	4.29 청주문화도시 다시찾은보물 출판기념회 도서전달식, 동부창고36동
	5.24 전국작은도서관대회, 원광대학교
	6.30-7.1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워크샵
	10. 19 제9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책잔치: 만나요 지금 작은도서관,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
2025	3. 12 2025 정기 총회, 성화꿈터 작은도서관
	4. 19 2025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워크숍: 작은도서관 영상 제작, 오창 호수도서관
	4. 19 2025 청주시 독서대전 체험부스 운영, 오창 호수도서관
	7. 29 청주시작은도서관 10주년 기록화사업 추진위원회 1차 회의
	8. 21-8. 29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전 회장단 인터뷰 & 영상 촬영
	9. 27 제10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책잔치 어서 와! 책으로 노는 작은도서관,분평동 원마루공원
	10. 15 청주시작은도서관 10주년 기록화사업 추진위원회 2차 회의
	10. 13 청주시작은도서관 10주년 기록문집 발행
	11. 14 청주시 통합 10주년 기념식/기록문집 발간/좌담회, 용암동 시립도서관



2025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10주년 기념 인터뷰집

# 묵묵히 함께

## 발행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 발행인

박미라

## 발행일

2025년 11월

## 편집

이재복

## 스크립터

이종수

## 운영

김윤숙 김하나

## 후원

청주시